

K리그 첫 '70-70' 클럽...이동국이 뛰면 역사가 된다

(골) (도움)



12일 개막하는 올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선 다양한 기록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 득점과 공격 포인트 기록을 보유한 전부 이동국이 골과 도움을 올릴 때마다 프로축구의 역사가 바뀐다.

스포츠동아DB

울산팬 이정협 파괴력은?

▶1면에서 이어집니다

●포항 스틸러스-광주FC(12일 오후 4시 포항스타디움)

젊은 엔진의 대충돌이다.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며 그라운드를 중형무진 누비는 포항 손준호와 광주 이찬동이 맞붙는다. 손준호는 지난해 9골·4도움을 기록하며 데뷔 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 올해도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맨'에서 광주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정조국의 발끝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 지난해 상대전적에선 포항이 1승2무로 조금 앞섰다.

●전남 드래곤즈-수원FC(13일 오후 2시 광양전용구장)

지난해 첼린지(2부리그) 정규시즌 4위를 차지한 뒤 플레이오프에서 승승장구하며 승격의 기쁨을 누린 수원FC의 '클래식 데뷔전'이다. 지난해 돌풍의 원동력이었던 수원FC의 '막공'(막을 수 없는 공격)이 클래식에서도 통할지 가능해볼 수 있는 기회다. 동유럽 출신의 '창' 스테보(전남)와 '방패' 블라단(수원FC)이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 유나이티드-인천 유나이티드(13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

1970년생 동갑내기 친구 사이인 제주 조성환 감독과 인천 김도훈 감독이 격돌한다. 나란히 감독 2년차를 맡은 두 사령탑의 올 시즌 운명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3차례 맞대결에선 김 감독이 2승1무로 압승을 거뒀다. 조 감독이 칼을 갈고 있다. 올림피아 대표팀 공격수 출신인 제주 김현과 인천 진성욱의 자존심 대결도 관심사다.

●상주상무-울산현대(13일 오후 4시 상주 시민운동장)

클래식에 복귀한 상주가 '명가 부활'을 노리는 울산과 대결한다. 상주 에이스 임상협과 울산 유니폼을 입은 이정협이 '창 대결'에서 양 팀의 희비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정협은 지난 시즌 상주 소속으로 첼린지에서 뛰어 '현역 임상협과 예비역 이정협'의 흥미로운 대결구도가 꾸러졌다. 양 팀을 대표하는 테크니션 이승기(상주)와 서정진(울산)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 시즌 어떤 기록들이 터질까?

김신욱 역대 9번째 '통산 100골' 눈앞
제주·성남FC, 팀 통산 400승 정조준

프로스포츠에서 기록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기록은 선수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리그의 가치를 높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12일 개막하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달성될 전망이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 기록에 관해서라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바로 이동국(전북현대)이다. 이동국은 현재 K리그 통산 득점(180골), 공격 포인트(246개) 부문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통산 득점 2위는 데얀(FC서울·141골), 공격 포인트 2위는 김은중(은·퇴·179개)이다. 이동국의 골과 공격 포인트는 쌓일 때마다 K리그의 역사가 된다.

이동국은 새 시즌 70골·70도움에 도전한

다. 지난해까지 180골·66도움을 올렸다. 올 시즌 4도움만 추가하면 K리그 최초로 70-70의 주인공이 된다.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뛰었던 물리나가 68골·69도움을 기록했으나, 올 시즌 K리그를 떠났다. 따라서 K리그 최초의 70-70 주인공은 이동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시즌부터 전북에서 뛰는 김신욱은 K리그 통산 100골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신욱은 지난해까지 통산 95골을 뽑았다. 올 시즌 5골만

보태면 K리그 역사상 9번째로 통산 100골을 달성하게 된다. K리그 통산 100골을 작성한 선수는 이동국을 비롯해 데얀, 김은중, 우성용, 김도훈, 김현석, 사사, 윤상철 등이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성남FC는 팀 통산 400승을 노린다. 지난해까지 제주는 397승, 성남은 393승을 올렸다. 역대 400승 달성 팀은 포항 스틸러스(477승), 울산현대(474승), 서울(445승), 부산 아이파크(405승) 등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클린축구위원회 "깨끗한 축구를 위하여"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이 12일 개막한다. 지난해 K리그는 젊은 선수들의 등장 등 여러 호재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일부 구단이 심판 매수를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인천 유나이티드와 광주FC는 재정적 문제로 선수단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올 시즌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리그가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클린축구위원회 발족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연말 클린축구위원회를 발족했다. 축구계에 존재하는 반스포츠적 비위행위의 척결과 K리그의 제도 약을 목표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대한축구협회와도 공조하면서 비리와 관련된 선수, 감독, 에이전트, 구단 관계자, 심판 등을 축구계로부터 영구추방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

연맹은 3일 '원 스크라이프 아웃' 제도 등 강력하고 엄중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심판비리, 선수계약비리에 대해선 사실상 밝혀지는 즉시 영구제명 또는 축구활동 전면금지 등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또 기

존 'K리그 클린센터'를 활성화하고, 협회 신고 및 제안센터 '온라인 신문고'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심판비리와 선수계약비리 제보를 접수한다. 향후 범축구계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 일원화 및 즉시처벌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판, 지도자, 선수 등 모든 축구 관계자들에 대한 의사 전환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정방지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맹 관계자는 "연맹에 수사권,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지만 프로축구 구성원들 스스로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K리그 구단들의 내실다지기는 가능할까?

도·시민구단이 탄생한 이후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의존하는 도·시민구단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자주 겪었다. 결국 일부 구단은 임금체불이라는 사태도 빚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시즌 종료 이전에 체불한 임금을 지급했으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연맹은 임금체불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임금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이 12일 개막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각 구단이 심판매수, 임금체불 등 불미스러운 과거를 거울로 삼아 올해는 깨끗하게 한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포츠동아DB

체불이 발생한 구단에 대해 하부리그 강등,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1점 이상의 승점 감점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구단은 아직 없다.

연맹 관계자는 "연맹이 직접 나서서 평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각 구단이 예산에 맞게 운영해 임금체불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입각해 제재해야 하지만 구단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무작정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연맹은 그 대신 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

쓰고 있다. 구단 CEO부터 일반 직원들까지 프로축구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단이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해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자립도를 갖추도록 측면지원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시민구단들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자체 지원금 외의 수익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가능한 많은 관중을 유치하고, 좋은 경기력을 발휘해 연구지역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석 기자 ghyong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파리 공습에 무너진 첼시...히딩크 매직 실종

남양현 기자의 런던 리포트

PSG에 1-2...첼피언스리그 8강행 실패

파리가 런던을 공습했다. 굳게 믿었던 '히딩크 매직'은 없었다.

거스 히딩크(69·네덜란드) 감독의 첼시(잉글랜드)가 10일(한국시간) 런던의 홈구장 스탬포드브릿지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의 2015~201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1-2로 졌다. 앞선 원정(2월 17일) 1차전에서도 1-2로 무너졌던 첼시는 1·2차전 합계 스코어 2-4로 8강행에 실패했다.

원정 1차전과 마찬가지로 '실점→동점→실점→패배'의 흐름이 되풀이됐다. PSG의 '에이스'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막지 못했다. 전반 16분 즐라탄의 낮은 크로스를 아드리안 라비오가 선제골로 연결하자, 첼시는 10분여 만에 디에고 코스타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사기가 오른 홈팀의 기세는 매서웠다. 그러나 운이 없었다. 아쉬운 골 찬스를 놓친 데 이어 후반 15분 코스타가 무릎 부상으로 교체되자 급격히 전열이 무너졌다. 결국 후반 22분 디 마리아가 띄운 크로스를 즐라탄이 밀어 넣었다.

첼시도, 히딩크 감독도 잃은 것이 많았다. 극심한 부진이 계속된 지난해 12월 소방수로 긴급 투입된 히딩크 감독은 이날 경기 전까지 모든 대화를 통틀어 단 1패(8승7무)를 기록 중이었는데, 첫 패배의 아픔을 안긴 것도 PSG였다. 징글징글한 '파리 징크스'로 인해 첼시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2경기 연속 무패(5승7무)의

좋은 흐름까지 꺾었다.

이날 벤치에 앉지 않고 경기 막판까지 테크니컬 에이리어에 서서 팀을 이끈 히딩크 감독의 모습은 유난히 컸다. 판정 어필도 많았고, 고함도 수차례 질렀다. 그런데 특히 화를 많이 낸 순간이 있었다. 스코어 1-2가 된 뒤였다. 승부를 뒤집으려면 3골이 더 필요해진 탓에 스타디움 공기가 급격히 냉각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선수들의 불성실한 플레이에 더욱 불이 난 듯했다. 패배를 예상하고 제 몫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이 보였다. 교체 아웃된 선수들에게 어깨를 톡 치는 특유의 스킨십이 이날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종료 휘슬이 울린 뒤에도 입을 꼭 다물고 그라운드만 응시했다.

첼시의 올 시즌은 아주 차갑다. 정규리그 29라운드까지 10승10무9패(승점 40)로 10위다.



거스 히딩크 감독(오른쪽)이 임시 사령탑을 맡은 첼시가 10일(한국시간) 런던 스탬포드브릿지에서 벌어진 2015~2016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1-2로 져 8강 진출에 실패했다. 히딩크 감독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응시하고 있다.

런던 | AP/시사

현실적으로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획득은 어렵다. 1경기를 덜 치렀음에도 티켓 획득 마지노선인 4위에 랭크된 맨체스터시티(승점 50)와의 격차가 10점이다. 주말 에버턴과의 FA컵 8강 원정에서도 무너지면 그야말로 빈

손이 된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입장권을 구입하고도 좀처럼 웃지 못하는 첼시 팬들의 마음은 아주 불편하다. 하프타임을 위해 라커룸으로 향하며 PSG 디 마리아와 유니폼을 교환한 데얀 아저씨가 부상으로 후반 교체될 때 터진 엄청난 야유에는 그들의 솔직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히딩크 감독도 "(팬들의) 화를 돌은 행위"라고 인정했다.

반면 원정팬들은 잔뜩 신이 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함성이 점차 멎어간 홈팬들에 반해 3000여 원정 응원단의 외침은 남부 런던을 은둔시켰다. 현장을 찾은 프랑스의 한 스포츠채널 리포터가 소감을 묻자 PSG의 머플러를 두른 한 팬은 "파리가 런던을 공격했다"는 따가운 말로 시선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그렇게 파리로 가득 찬 런던의 밤이 흘렀다.

런던 | 남양현 기자 yoshike3@donga.com